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근속 인센티브 조기 지급 시작

- '25년 1월 취업 청년, 당초에는 '26년 7월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 7월부터 수령 가능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빈일자리 업종 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경기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이 신규 채용을 유보하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에 1차 추경을 통해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시기를 앞당기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 (기존) 근속 18·24개월차 지급 → (변경) 6·12·18·24개월차 지급(480만원 총액은 동일)

이에 따라, 1월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 사업에 참여한 3,282명의 신규 취업 청년들에 대한 청년 근속 인센티브가 7월부터 지급되었다. 향후 더 많은 청년(2025년 상반기 유형 II에 참여한 청년 17,334명)이 청년 근속 인센티브의 혜택을 누릴 예정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현재 유형 I, 유형 II로 운영되고 있다. 유형 I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유형 II는 빈일자리 업종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신설되었고, 기업 뿐만 아니라 청년에게도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유형 II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근속 6·12·18·24개월 차에 각 120만 원씩, 최대 480만 원 지급된다.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이정환 고용정책실장은 “청년 근속 인센티브 조기 지급을 통해 청년들이 신속하게 취업하고 근속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또한,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중소기업이 청년이 일하고 싶은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청년고용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지원 (044-202-7432)
	공정채용기반과	담당자	사무관	임동훈 (044-202-7466)